

「채권 발행기관 협의체」 제2차 회의 결과

- 범정부 차원의 노력, WGBI 자금 유입 등으로 공적채권 조달금리 하락
- 2분기 발행량 증가 예상되나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기관 공조 지속 (기관간 발행시기 조정 + 국고채 중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)

재정경제부는 4월 22일(수) 15시 「채권 발행기관 협의체」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(주재: 황순관 국고실장). 회의에서는 금융위·금감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주요 정부보증채·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*하여 1분기 발행 실적을 점검하고 2분기 시장여건, 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(참석기관) 재경부, 금융위, 금감원, 산은, 수은, 기은, 한전, 주금공, LH, 장학재단 등

정부 및 발행기관은 지난 1차 회의(2.25일)에서 WGBI편입 전 시장 안정을 위해 1분기 발행량을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. 1분기 실적 점검 결과 국고채는 1분기 발행목표(27~30%)의 최소 수준(27.5%)인 61.5조원 발행되었고 국고채 제외 공적채권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7조원 내외 축소 발행되었다.

중동전쟁, 인플레이 우려 등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공적채권 발행량 조정, 긴급 바이백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4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*를 보이고 있으며, WGBI편입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원활한 상황이다. 발행기관들은 2분기 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으로 4월 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.

* 국고채 금리 추이(3.23일→4.1일→4.21일, %): (3년물) 3.617 → 3.370 → 3.330(△28.7bp)
(10년물) 3.879 → 3.689 → 3.655(△22.4bp)

개선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2분기 국고채 및 주요 공적채권은 정상적으로 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. 국고채의 경우 상반기 발행 목표(55~60%) 범위 내에서 5~6월 발행량을 결정한다.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의 2분기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대비 6조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정부 및 발행기관은 2분기 국고채 및 공적채권 발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* 기관별 발행계획을 점검·조정하였다. 또한, 정부는 대부분의 공적채권이 단기물(만기 3년 이하)인 점을 감안하여 2분기 국고채 발행시 중장기물(만기 5년 이상) 발행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수급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.

* '26.2분기 공적채권(국고채 포함) 발행비중(%): (4월) 34.6 (5월) 33.3 (6월) 32.1

황 국고실장은 “4월 들어 WGBI 자금의 안정적 유입* 등으로 채권시장이 안정되었으나,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시장상황 점검 및 기관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”이라고 평가하며, “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통해 발행량 및 발행 시기를 협의·조정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: 체결기준[3.30~4.21일] 8.5조원, 결제기준[4.1~4.21일] 6.4조원

정부와 발행기관은 2분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고실 국채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황희정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익 (ksi1206@korea.kr)

